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8월 27일(주일) 제1456호



사진은 부모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2023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결산

해외 158개 팀, 국내 260개 팀
총 8,668명 참가

2023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막을 내린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에는 성인 공동체, 사역팀, 대학청년부, 차세대에서 해외 158개 팀, 국내 260개 팀 총 8,668명이 참가했다. 해외 아웃리치는 탄자니아, 필리핀, 레바논, 캐나다, 몰도바 등 32개국에서 선교사 위로, 어린이사역, 시설 보수, 전도사역 등을 했다. 성인공동체 85개 팀 613명, 대학청년부 56개 팀 765명, 차세대 17개 팀 322명이 참가했다.

국내 아웃리치에서는 농어촌교회, M센터, 기관 등지를 찾아가 시설보수, 여름캠프, 새참 나눔, 어르신 섬김, 환경미화 등을 했다. 성인공동체 130개 팀 4,270명, 대학청년부 119개 팀 2,443명, 차세대 11개 팀 255명이 참가했다.

남주현 집사(마포공동체)는 "아웃리치에 참여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다"고 고백했고, 윤원재 집사(강남D공동체)는 "아웃리치에서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다"고 간증했다.

/ 홍하영 기자

장로중보기도모임 개강예배

9월 1일 10시 30분
서빙고 두란노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환우, 통일, 다음세대를 위해 부르짖는 장로중보기도모임이 개강한다. 9월 1일(금) 10시 30분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린다. 9월 8일(금)부터는 순회예배에서 장로중보기도모임을 한다. 매주 화, 수, 목요일에는 장로들이 릴레이기도를 한다.

장로중보기도모임은 지난 2005년 1월 시작됐다. 2011년부터 대상을 온누리교회 모든 장로로 확대해서 중보기도와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

당회

일시: 9월 2일(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안건: 평남노회 청원

제직회

일시: 9월 3일(일) 2부 예배 후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대상: 모든 제직
안건: 평남노회 청원

“전도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전도사역본부, '2023 전도엑스포' 개최
9월 3일 서빙고 이천만광장, 양재 사랑홀 앞 광장

'2023 전도엑스포'가 막 오른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을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절호의 기회다.

전도사역본부에서 오는 9월 3일(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앞 광장에 전도 부스를 설치하고, 전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도 관련 상담 등을 한다.

2023 전도엑스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전도에 관심과 사명을 갖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전도학교, 전도폭발, 병원전도, 군선교, 맞춤전도, 호스피스, 열린예배, 전도콜센터 등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 산하 사역팀이 모두 참가한다. 각 사역팀의 전문사역자들이 전도 부스에 배치된다.

2023 전도엑스포에서는 전도 관련 세미나도 개최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홍보관, 양재온누리교회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강의동 305호에서 세미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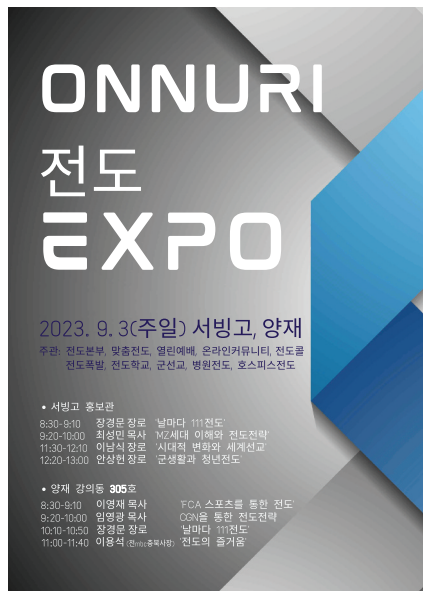
서빙고온누리교회 전도 세미나에서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 10분까지 장경문 장로 '날마다 111전도', 오전 9시 20분부터 오전 10시 10분까지 최성민 목사 'MZ세대 이해와 전도 전략',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이남식 장로 '시대적 변화와 세계선교', 오후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안상현 장로 '군 생활과 청년전도'를 주제로 강의한다.

양재온누리교회 전도 세미나에서는 오전 8

시 30분부터 오전 9시 10분까지 이영재 목사 'FCA 스포츠를 통한 전도', 오전 9시 2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임영광 목사 'CGN을 통한 전도전략', 오전 10시 10분부터 오전 10시 50분까지 장경문 장로 '날마다 111전도', 오전 11시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이윤석 전 MBC 총북사장 '전도의 즐거움'을 주제로 강의한다. 전도 세미나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전도콜센터 김주영 팀장(010-5219-8707)이나 전도콜센터 전용 전화(02-3215-337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3215-3377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라인커뮤니티 9월 12일 개강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Zoom)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 하반기 과정을 개강한다. 9월 12일(화)부터 12월 5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하반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김성묵 장로가 '통(通)하는 부부, 통(痛)하는 부부'를 주제로 강의한다. 10월 23일에는 JCC아트센터에서 온라인커뮤니티 맞춤전도집회를 개최한다. 최정주 권사(아트앤뮤직 큐레이터)가 강의한다. 11월에는 보이는 라디오 '슬기로운 말씀생활'을 선보일 예정이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21년 5월 시작됐다.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및 순회 활동 참여가 어려운 20세 이상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양육 플랫폼이다. 직업적 특성, 이사 등 개인 사정으로 교회나 공동체에 소속할 수 없는 무(無)공동체 성도,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했거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성도 등에게 온라인으로 영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노아 시대에 일어난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은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환경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변화된 세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극한 환경, 사막이나 고원지대, 북극과 남극, 밀림으로 우거진 지역이 있는가 하면, 몽골 고원 같이 풀한 포기 제대로 나지 않는 지역 있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곳에서만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랜드캐니언의 깊은 계곡을 보면 세 가지 지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지층이 있고, 엄청난 대격변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지층이 있고, 가장 위에 퇴적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층이 있습니다. 화석들은 가장 위에서 발견되지 않고 중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됩니다. 무엇인가 큰 격변이 일어나서 그 순간에 멈춰버린 것 같은 화석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생물체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의 흐름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지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환경이 언젠가 있었던 대격변으로 인해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창세기〉7장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이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고 합니다. 지진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층의 변화로 인해서 아래로부터 물이 솟구쳐 올라 지구에 엄청난 대격변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격변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환경은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조화를 이루었던 야생 동물들도 본성이 변화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2절).

홍수 심판 이후 여덟 명만 생존했는데, 많은 생물이 인간을 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통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명밖에 남지 않은 인간들이 나머지 생물들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지구환경 변화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육식도 허용됩니다.

“살아 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3-4절).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지구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채소가 자라지 않는 북극이나 사막 지역에서 어떻게 채소를 먹겠습니까? 물론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사막에서도 딸기를 재배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채소를 재배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육식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후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양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때문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홍수 이전 사회의 특징은 폭력이었습니다. 잔인함이었습니다. 이제 엄격한 보응의 법을 세우심으로 폭력이 억제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5-6절).

하나님이 개인적 복수를 지시하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 피를 흘리게 하면 똑같이 양갓음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적 권력을 통해서 공의의 칼을 집행하는 일종의 정부기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죄를 억제하는 도구로서의 공권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에는 이, 칼에는 칼”이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양갓음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게 하고, 공적인 기관의 공의로 법집행을 통해서 악을 제어하는 게 공권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이 국가기관에 명하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 영역에 나눠 주셨습니다. 가정의 영역, 교육 기관의 영역, 기업과 상업의 영역, 국가의 영역,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권위를 나눠주셨습니다. 공권력의 기능은 악에 대한 보응, 악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공의로운 칼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대격변이 일어난 사회에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기 위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목적은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1절).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7절).

〈창세기〉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을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물론 노아가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류의 시조이지, 둘째 아담은 아닙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은 인류에 두 사람 뿐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둘 중 한 사람에게 속합니다. 구원은 첫째 아담에게서 둘째 아담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것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의인이 됩니다. 노아는 두 번째 인류의 시조로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계획의 명령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또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인간에 죄성입니다. 홍수 심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창세기〉11장에 이르러 바벨에서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심판이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심판과 벌은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악이 사라지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속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용서, 십자가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불순종한 이들을 순종하는 이들로 바꾸시고, 배반하고 타락한 이들을 죄로부터 건지십니다. 심판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 독생자의 십자가 은혜로 죄로부터 건져 주시고, 죄와 악을 씻으시는 역사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전에 인간을 만나셨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만나셔야 했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하신 금지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언약을 학자들은 ‘행위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홍수 심판 이후 심판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 심판으로도 죄성이 변화되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의 은

“무지개는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인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인내하시고, 인애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증거자가 되십시오.”

हे로 죄로부터 건지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에 “언약을 맺었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노아와 맺은 언약 이후 언약을 가리켜 ‘은혜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9절).

성경에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약은 믿을 수 없는 상대끼리 맺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실하신 분이데 무슨 약속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인간, 믿음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용서와 의롭게하시고 회복을 통해 죄로부터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믿음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믿음조차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여덟 명만 생존한 것을 보면 인간에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인간에게 심어주셔야 합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을 가질 때 십자가에 나타난 새 언약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심판으로도 씌어지지 않는 죄가 하나님 은혜로 씻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중요합

니까? 종교개혁자 칼뱅도 <기독교 강요>를 쓸 때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쓴 <창세기 주석>에는 노아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쓰고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깊이가 있을수록 노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습니다. 특히 <창세기> 9장을 깊이 연구하면 우리가 사는 환경도 홍수 심판 이후 환경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지를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11절).

이 말씀을 “다시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침수되었다가 물이 빠진 모습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가 그들이 다시 배 밖으로 나왔을 때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 공포와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물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바다를 향해하고, 신대륙을 탐험하고, 바다 속을 연구하겠습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인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연의 법칙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 만물을 불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배재하고 세상을 보면 자연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연신론’을 만듭니다. ‘디즘(Deism)’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했지만 창조 이후에는 자연의 법칙처럼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욥기> 말씀처럼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물을 통제하고 계시며,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의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세계의 법칙을 불드

시고, 법칙을 행하고 계십니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창 8:22).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은 더위만 있고, 어느 지역은 추위만 있지만, 추위와 더위가 함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름이 있는 지역, 겨울이 있는 지역, 낮과 밤이 교차되는 자연의 법칙들이 홍수 심판 이후 인간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모든 일에 작용합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 빛이 고통스럽지만, 식물에게는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등 모든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자연 질서를 보존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들을 보존해 주시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이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대격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해 보이는 기간, 안정적인 기간, 지구환경의 보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방주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12~17절).

무지개는 하나님 은혜와 유사점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비구름과 태양빛의 혼합물입니다. 인간 죄의 먹구름에 하나님 은혜의 빛이 비칠 때 은혜의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십자가 은혜가 인간의 어두운 죄를 뚫고 임할 때 은혜의 색깔이 어떤 사람에게든 화해로, 어떤 사람에게든 용서로, 어떤 사람에게든 평화로, 어떤 사람에게든 기쁨으로, 어떤 사람에게든 치유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무지개가 하늘과 땅에 걸쳐져 있는 것처럼,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하늘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늘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며, 십자가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서곡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안타깝게도 무지개가 지금은 ‘LGBT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상징들, 단어들을 모두 뺏겨 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구원’이라는 중요한 단어는 구원파가 가져가고, ‘영생’은 영생교가 가져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가 가져가고, 도대체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 은혜의 상징입니다. 인간 죄의 먹구름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 빛이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혜로 임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인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인내하시고, 인애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증거자가 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낙태와 영아살해: 생명이란 무엇인가?

최근 영아살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어 경찰이 수사 중인 사라진 아기가 1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태어나서 바로 예방접종은 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들이 2천 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 시스템이 2015년에 만들어졌으니 그전의 형편은 가늠할 수 없다.** 언론은 영아살해에 가담한 부모들을 비난하고, 국회 법사위는 법률에 있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형량이 너무 낮으니 이를 폐지하고, 형량이 더 높은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반면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낙태를 시도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이전의 법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2020년 말까지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이와 관련된 입법을 미루는 동안 임신 14주까지는 전면적으로, 24주까지는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들이 제안된 적이 있다. 심지어 태어나기 전까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률안도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입법을 미루면서 법적 공백 상태에 있다.

영아살해와 낙태에 대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언론의 상반된 태도를 보면서 ‘과연 생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영아살해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태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든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모태 밖으로 나와야 생명인가? 임신 9개월이 지나 태어날 날이 임박한 아이는 생명이 아닌가? 그러면 자궁 밖으로 반쯤 나온 아이는 생명인가?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들에서 임신 14주, 22주, 24주 등 기준이 있으나 임의적인 설명일 뿐이다.

“성경은 태아를 발생 초기 단계에 있는 완전한 인간 개체이며, 태어나서 성인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성경은 태아를 발생 초기 단계에 있는 완전한 인간 개체이며, 태어나서 성인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시편〉 139편 기자는 수태된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살피고 있음을 강조한다.** 욕, 다윗, 세레 요한, 사도 바울도 태에서부터 인격을 부여하신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다. 성경은 수태의 순간부터 생명임을 확정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의 생명은 동물과는 다른 가치를 지닌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실 만큼 태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그 생명권은 지켜져야 한다.

과학도 성경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유전적 특성의 정보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하는 수정의 순간에 결정되고, 그 후에는 변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수정부터 태어날 때까지 기간 중 어디까지가 비생명이고, 어디부터는 생명이라고 나눌 수 있는 불연속 구간이 없다. **하나의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끊임없는 세포의 증식을 거쳐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들로 형성된 태아로 발달한다. 수정 순간부터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여되기에 태아에게도 인권이 부여되는 게 마땅하다. 우리 민법이 이 점을 인정해서 유복자에게도 상속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성 혁명을 추진하는 진영이 우리 자녀들의 교과서에 널리 흠뻑 뿌려 놓았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개개인이 자기의 성별정체성 선택, 성관계 상대 선택, 낙태의 선택, 성전환의 선택에 포괄적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국교위의 의미 수정고시는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한 방어 의미로 성적자기결정권을 국한했다.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성관계하겠다는 결정에는 반드시 생명의 잉태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뒤따름을 학교와 가정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다. 〈시편〉 127편은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을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축복하셨다.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는 성-생명-결혼-가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리 벗어난 것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성적 순결과 결혼의 연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대행하는 청지기 역할을 버리고, 성에서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인 생명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만들어 버리는 성 혁명적 교육이 낫은 결혼율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성 윤리의 기준이 무너진 이 시대에 성경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앞에서 했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선언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남자와 여자

질서와 행복 안겨 주는 유일한 해결책!

이미정 권사
(서빙고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창조의 절정에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의도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전례 없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혼돈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어떤 점을 혼돈하고 있는지도 혼돈스러운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확인하고 간직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시대인 것 같다.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에서 복음주의의 거장 존 스토티는 현시대의 다양한 이데올로기(페미니즘 등)에 귀를 닫아버린 채 그러한 도전에 민감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성경을 부인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성경의 가르침, 복음의 핵심적인 정신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평등성, 상호 보완성, 책임과 사역에 관해 다루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성은 창조에서 기인한다. 남성과 여성의 인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고, 땅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타락으로 우리의 형상이 어그러짐으로써 그 평등이 깨지게 되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평등이라는 창조의 원래 복을 회복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만나신 여자들과의 관계를

“성경에 나타난 남자와 여자를 통한 창조의 원리는 믿는 자와 교회뿐 아니라 정체성 문제로 혼돈한 이 세상에 궁극적인 질서와 행복을 안겨 주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통해 그들의 고귀함을 회복시켜주셨다. 그뿐 아니라 부활 이후 그를 사랑하는 모든 남녀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타락으로 훼손된 평등을 회복시키셨다. 그 평등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의 평등이며, 믿음에 의해 평등하게 구원받고 성령에 의해 중생하는 평등이다.

그런데 동일한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은 동일성이 아닌 상호 보완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상호 보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양성의 특성을 규정지으려 할 때 우리 시대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의심하거나 전적으로 이를 부정하려 한다.

〈창세기〉의 남녀의 평등성과 상호 보완성에 바울은 남자의 ‘머리 됨’이라는 개념(고전 11:13)을 더한다. 존 스토티는 〈창세기〉의 평등성, 상호 보완성과 조화를 이루는 머리 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주의 깊게 풀어간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 이신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 라면 성부와 성자가 평등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둘째,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머리 됨을 생각한다면 머리 됨의 지도력은 통제가 아닌 보살핌, 권위가 아닌 책임이며, 지배와 의사 결정의 머리 됨이 아니라 섬김과 양육의 머리 됨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머리 됨은 참된 정체성을 촉진할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불확실성의 혼돈 속에 빠져버릴 위험에 처한 이 시대에 존 스토티는 먼저 믿는 자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 깊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그 도전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려 깊은 고찰을 통해 전반적으로 세력을 떨치는 세속주의에 맞서 가정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남성의 머리 됨이라는 한 쌍의 성경 원리를 증언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에 대해 세상이 혼돈할수록 그리스도인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따르는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풍성함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 이를 가르치고 지켜나가는 충성된 남종과 여종이 되기를 간구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남자와 여자를 통한 창조의 원리는 믿는 자와 교회뿐 아니라 정체성 문제로 혼돈한 이 세상에 궁극적인 질서와 행복을 안겨 주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맛있는 말씀 해설

“...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창 1:26)

인간이 동물과 다른 독특한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인간만이 직립보행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문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러한 존재인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간만을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끊임없이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작은 차이가 있는 진화된 동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동물도 사람처럼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문화를 만들 수 있어서 인간과 동물이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마치 비행기와 자동차를 비교해서 바퀴, 의자, 철제 부품 등이 유사하므로 그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궤변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근본적인 차이는 외면한 채, 비슷한 게 있으므로 자동차와 비행기가 같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1975년 <Science> 논문에서 인간과 침팬지의 DNA 차이가 1%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2005년 <Nature> 논문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침팬지를 “1% 부족한 인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인간과 침팬지가 작은 차이를 보이는 유사한 동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사람과 사람의 DNA 차이를 1%라고 보고 하고 있다. 바로 1%의 차이가 사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사람과 침팬지의 DNA 차이가 1%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까? 전체 유전정보 설계도의 극히 일부인 DNA 염기서열만 비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DNA 염기의 일부만을 비교한 초창기 연구에서는 1%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고, 최근에는 조금 더 길게 DNA 염기를 분석해서 그 차이가 3% 또는 4~5%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유전정보 설계도의 기능을 더 잘 알 수 있는 RNA로 인간과 침팬지를 비교하면 유전적 차이가 40%에 이른다. 앞으로 유전정보 시스템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적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인간과 침팬지는 근본적으로 유전정보 설계

도가 다르고, 인간은 당연히 사람의 유전정보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의 설계도지만 사람마다 DNA정보가 조금씩 다르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유전정보 설계도가 모두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아빠 엄마로부터 각각 23개 염색체로 받아 23쌍을 이루어 나의 설계도가 된다. 만약 우리의 아빠 엄마가 영원히 살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면, 염색체의 조합만으로 70조 명이 넘는 서로 다른 아이들을 낳을 수 있다. 또 아빠와 엄마로부터 받은 염색체는 아기 몸에서 다시 조정되어 한 부모로부터 무한대의 다양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 우리의 부모들이 서로 다르므로 모든 사람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는 독특한 유전정보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난다.

누구나 독특한 유전정보를 가진다는 것은 과학이고 상식이지만, 동시에 나의 중요한 정체성의 하나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의 유전정보를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나의 유전정보를 설

계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알고 나의 창조목적에 계획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삶을 허비하고 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준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고, 누구도 대신 갈 수 없는 길,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나만의 창조목적에 향해 가게 해준다.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을 충성되게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Acts29 사명을 이어 가는 성도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건강을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몹시 피곤했습니다.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손이 떨리고, 목이 많이 부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목이 눈에 띄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치료를 받기로 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약을 먹은 지 4개월이 되었는데 몸이 피로한 것과 목이 부은 게 낫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급한 마음이 들고, 걱정이 큼니다. 쉬는 동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건강 문제로 지친 저를 예수님이 꼭 안아주시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병이 깨끗이 낫도록 기도해주시고, 현재 약물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 체중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이 부작용 없이 몸에 잘 흡수되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8월 28일~9월 3일
<사도행전> 7:27~28:31,
<히브리서> 1:1~2:18



묵상포인트 1: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선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바울은 배의 안전한 정박을 위해 사공들의 이탈을 막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며 안심시킨다. 또 멜리데(몰타)섬에서는 병자들을 위

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낸다. 그 어떤 위기에도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리더십을 묵상하자.

▶바울이 탄 배가 거센 폭풍 속에서 14일을 버티다가 작은 섬에 다다른다. 바울은 사공들의 도주를 막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음식 먹기를 권한다. 배에 탄 276명이 모두 안심하고 바울이 축사하고 나눠주는 떡을 먹는다. 배는 부서졌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멜리데섬에 상륙해 구조된다.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신으로 여긴다.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을 위해 기도하고 열병을 고친다. 다른 병든 이들이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고, 3개월 뒤 바울 일행은 후한

대접을 받으며 로마로 다시 떠난다.

묵상포인트 2: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전파되고 확장되었다. 지금도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분이나 상황이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묵상하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믿음의 형제들이 맞이한다. 바울은 이들로 인해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청해 자신이 로마에 온 경위를 설명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나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사 6:9-10)같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리라고 말한다.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모두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친다.

묵상포인트 3: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 준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모두 경험하셨고, 사망에 종노릇 하던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선물하셨다. 모든 피조물이 경배할 하나님 아들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이유와 목적을 묵상하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최종적이며 완전한 계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가 되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에 종노릇 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직접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바울은 거센 폭풍 속에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영적 리더였다. 가정, 직장, 건강 문제 등으로 낙망하는 지체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자.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음에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모두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고 거부하는 이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만물이 경배할 하나님 아들이심을 기억하자.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아시며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고, 시험받을 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레바논 난민촌

시리아 난민,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으며...

양재 2000선교, CMN, 분당B공동체 연합 아웃리치

13년, 200만 명, 천막 텐트, 영양실조, 월수입 14달러.

이 단어들이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준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 '13년' 되었고, 시리아 난민 '200만 명'이 전쟁을 피해 레바논으로 도망쳐왔다.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버려진 천을 주워 '천막 텐트'를 짓고 사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영양실조'에 시달린다. 난민 90%가 '월수입 14달러'로 생활하고 있다.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양재 2000선교, CMN, 분당B공동체 연합 레바논 아웃리치팀(이하 레바논 아웃리치팀) 55명이 지난 8월 11일(금)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러 떠났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이스탄불을 거쳐 레바논까지 15시간 걸렸다. 그들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기대감이 가득했다. 한시라도 빨리 난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엿보였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도, 약을 살 수도 없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봉사자가 온 것이 처음입니다. 여러분의 방문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 같습니다.”

차세대사역팀은 아슈꾸트(Aachqout) 지역에 있는 '온누리라이프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레바논에서 가장 큰 채석장이 있는 곳이다. 시리아 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박정대 선교사가 지난 6월 온누리라이프센터를 세웠다. 아슈꾸트 지역에는 개신교회가 없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시리아 난민들이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한 가정에서 아버지들만 모여 예배드렸는데, 온누리라이프센터가 세워지고 나서는 온 가족이 함께 미움것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여덟 가정의 출석하고 있다.

이날은 온누리라이프센터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도 초대했다. 아이들 40명이 모였다. 차세대사역팀이 한국에서 챙겨온 과학실험 도구와 먹거리, 활동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현지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물로켓을 만들어서 날려보기도 하고, 팍콘도 만들어 나눠줬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는 복음 팔찌를 나눠줬다. 아이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온누리라이프센터 박정대 선교사는 “매일 난민들과 함께 밥을 해 먹고, 예배와 모임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보다 큰 행복은 없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온누리라이프센터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종일 성경을 보고, 몇 시간씩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섬겨줄 손길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난민들에게 필요한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곳 아이들은 중학생이어서도 알파벳이나 더하기 빼기를 하지 못합니다. 문맹이 많아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알려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온누리교회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 와서 난민들을 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레바논 아웃리치팀이 베이루트에서 사역을 마치고 8월 14일(월) 베카(Bekaa)로 이동했다. 베카는 해발고도 1천m 이상의 농경지다. 시리아의 국경과 맞닿아 있다. 시리아 난민들이 텐트촌을 이룬 대표적인 곳이다. 난민들이 지내는 텐트는 모양만 텐트지, 나무 기둥을 세우고 버려진 천을 주워다 덮은 천막집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10평 남짓한 곳에 평균 8명의 가족이 함께 생활한다. 그 텐트가 삼삼오오 모여있다.

난민들의 삶은 가혹하다는 표현이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 생각해보면 전쟁을 피해 온 난민들이 텐트를 세울 땅이 어디 있겠는가. 난민들이 텐트를 세운 땅의 주인에게 1년에 200달러를 내야 한다. 온종일 일해야 고작 1~2달러를 버는 난민들이 생활비와 집세를 감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어디 이뿐인가. 고된 노동과 더불어 여름이면 영상 40도, 겨울이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날씨도 문제다. 그래서인지 그 작고 초라한 텐트에서 지내는 이들의 건강이 상할 대로 상해있었다. 몸과 마음의 치료가 시급해 보였다.

레바논 아웃리치팀이 '드림라이프센터'에 집을 풀었다. 이곳에서는 진료실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진료과 2~3개가 모여 진찰을 시작했다. 기온이 40도까지 올랐지만 아랑곳하



지 않고 진료했다. 진료를 시작하자마자 몰려드는 난민들을 맞이하는 접수처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해졌다. 환자들을 접수하고 진찰받을 과를 안내하는 손길도 더불어 분주해졌다. 의료진들은 환자들 많다고 진료를 허투루 보지 않고 몇 번이나 통역하며 상태를 살폈다. 그런데 이곳의 환자들은 베이루트의 환자들과 달리 증상이 다양했다. 그 다양한 증상이 그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드림라이프센터를 섬기는 박희창 선교사가 이곳에서 대대적인 의료사역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곳에서 대대적인 의료사역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난민들은 대부분 심각한 상태에만 병원에 갑니다. 그런 곳에 의료진이 먼저 찾아주니까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 진료가 비싼데 치과의사들이 많이 와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료사역의 선한 영향력이 수년 동안 지속할 것입니다. 이곳을 잊지 말고 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세대사역팀은 텐트촌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안자르 라이프센터로 이동했다. 베이루트보다 넓은 장소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재현한 놀이, 물로켓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을 하면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줬다. 아이 한 명 한 명 사진을 찍어 현장에서 출력해주는 코너가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은 자기가 나온 사진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몇 번이나 꺼내 보았다. 복음 팔찌를 받고 두 손을 모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아이들의 거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다.

레바논 아웃리치팀은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환자 1,500여 명을 진료하고, 어린이 150여 명을 섬겼다. 레바논에는 난민 200만 명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려야 한다. 바로 그것이 먼저 믿은 자들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인제

예수의 십자가, 그 빛이 빛나고 있었다!

강원도 어른교회와 SNS청년부 열두 명의 청년들

강원도 밤하늘에는 유독 빛나는 별들이 가득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이 캄캄한 어둠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른교회를 밝히 비추는 십자가도 있었다. 어른교회 십자가다. 어두운 밤길은 물론이고, 온 동네 지붕과 풀벌레가 노래하는 고추밭까지 십자가 빛이 닿고 있었다. 어른교회 십자가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도 비추고 있었다.

온누리교회 SNS청년부 소속 청년 12명이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른교회를 찾았다. 농사일도 돕고, 정성껏 만든 새참을 어르신들께 대접했다. 폭폭 찌는 날씨에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청년들과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었다. 그 아름다운 미소가 어른교회 십자가처럼 밝히 빛나고 있었다.

/ 김다에 기자 daa2@onnuri.org

지난 7월 28일(금) 정오, SNS청년부 소속 청년들의 손길이 분주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빼놓을 수 없었다. 청년들이 둥그렇게 모여 기도하고 강원도 인제로 출발했다. 한참 달리는 차 창으로 길게 뻗어있는 옥수수밭이 보였다. 얼마나 싱그럽던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했다. 저 멀리 십자가가 보였다. 강원도 인제 어른교회 십자가다. 밝게 빛나는 어른교회 십자가가 청년들을 반기고 있었다.

자그마한 초등학교 옆길을 따라 걸었다. 빨간 벽돌로 지은 작은 교회가 보였다. 여기가 어른교회다. 출발할 때는 낮이었는데 어른교회에 도착했더니 벌써 어둑어둑해졌다. 무거운 짐가방을 든 청년들을 어른교회 성도들이 두 팔 벌려 맞아줬다. 어른교회는 참 편안하고 따뜻한 교회였다. 감사예배를 드리고 짐을 풀었다. 다음날 사역을 기대하는 청년들의 들뜬 목소리가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해가 뜨기도 전에 청년들이 모였다.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기도모임을 하고 사역팀별로 흠뻑 뿔었다. 열두 명의 청년들이 새참사역팀과 고추밭사역팀으로 헤어졌었다. 새참사역팀은 맛있는 전을 새참으로 준비했다. 에어컨도 소용없는 뜨거운 가스 불 앞에서 누구하나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어르신들께 새참을 대접할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SNS청년부에서 새가족 과정을 밟고 있는 신지환 형제가 고백했다. 평소 요리를 좋아한다는 신지환 형제가 주방장을 맡았다. 신지환 형제의 진두지휘로 새참이 딱딱 완성됐다. 그의 고백대로 각자의 은사로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였다. 어려운 상황과 힘든 환경이 청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막아서지 못했다. 참 맛있고 예쁘게 부친 전들을 차곡차곡 도시락통에 담았다. 새참을 드시면서 기뻐하실 어르신들 생각에 벌써 웃음이 났다.

“새참 배달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신 고추밭으로 새참을 배달하러 갔다. 새참을 실은 승합차를 보시고 한 어르신은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며 달려오셨다. 어르신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주르

룩 흘러내렸다. 어서 시원한 식혜를 한잔 드렸더니 별처럼 비우셨다. 정성과 기도로 준비한 새참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께 감사했다. 밭에서 먹는 새참은 정말 꿀맛이었다. 새참과 함께 마음도 나눴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장덕수 장로(어른교회)가 청년들에게 인사했다.

“더운 날씨에도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준 새참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청년들 덕분에 어른리에 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고추밭에 울려 퍼진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별뿔별’

이른 새벽, 아직 캄캄한데 고추밭 사역을 시작했다. 청년들이 그럴듯한(?) 작업복을 챙겨 입고 교회를 나섰다. 구불구불한 흙길을 따라 걸었다. 고추밭이 보였다. 청년들이 비장한 각오로 고추밭에 들어갔다. 한 사람이 한 고랑을 맡았다. 고추밭 작업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가시가 너무 쉽게 끊어져서 아가 다루듯 다뤄야 했다. 특히면 끊어지는 가시가 연약한 내 믿음처럼 느껴졌다. 다른 청년들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데 앞으로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자”고 서로를 격려했다.

한참 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제야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지금부터는 내리쬐는 햇살과도 싸우면서 밭일을 이어가야 했다. 구부러진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다. 넓게 펼쳐진 초록빛 고추밭에서 보는 파란 하늘이 무척 아름다웠다. 해가 더 뜨거워져서 힘들다고 여겨질 찰나 한 자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 금세 온 고추밭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다. 뜨거운 햇살보다 예수님을 향한 청년들의 마음이 더 뜨거웠다. 찬양을 시작한 이미진 자매가 고백했다.

“고추 꽃과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감동했습니다. 작은 생물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생각하니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SNS청년부 강원도 어른교회 아웃리치팀이 고추밭사역(위)과 새참사역(아래)을 했다.

늦은 밤,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데 별들이 가득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다. 가만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별뿔별 하나가 떨어졌다. 도심에서는 보지 못했던 별뿔별이 신비롭게 느껴졌다. 그 별뿔별은 고생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았다. 이지훈 형제가 별뿔별을 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읊조렸다.

“저 별뿔별처럼 내게도 항상 준비된 은혜가 있는데 깨닫지 못한 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잊고 살았던 은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누리게 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과 힘찬 에너지를 얻었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은 주일이였다. 청년들이 아침부터 분주했다. 어른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기 위해서다. 화려한 조명도 없고, 빼어난 영상도 없었지만, 그 어떤 예배당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웠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청년들의 찬양에 어른교회 성도들의 어깨가

같이 들쭉였다. 어른교회 성도들을 향해 두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열심히 포장한 선물과 장미꽃 한 송이를 전해드렸다. 활짝 핀 장미꽃을 선물 받은 어른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화사해지는 것 같았다. 이날 예배는 정말 아름다웠다. 성도들과 청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풍성한 은혜를 나눴기 때문이다. 어른교회를 섬기는 박종윤 목사 가정을 향한 블레싱도 이어졌다. 다 함께 손을 잡고 박종윤 목사와 그 가정, 어른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강원도 어른교회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과 구름, 밤하늘의 별, 졸졸 흐르는 물소리까지 눈길이 안 가는 곳이 없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지내는 동안 청년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했다. 열심히 섬기겠다는 각오로 온 청년들이 오히려 어른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힘찬 에너지를 얻었다. 강원도 인제 어른교회에는 예수의 십자가, 그 빛이 밝히 빛나고 있었다. 그곳을 비추던 십자가 빛을 기억하며 다시 일상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어른교회 박종윤 목사가 인사했다.

“먼 길 달려와 준 SNS청년부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어른교회에 새벽 별빛 같은 청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양주 A공동체
양주 네팔 이주민교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네팔 이주민 교회와 함께 네팔에서 온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 나섰다. 비행기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크게 무리가 없는 네팔 청년들을 만나러 갈 생각에 기대가 되었다. 올여름 남양주온누리교회 A공동체 수택다락방 아웃리치는 출퇴근 형식의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첫날에는 노방전도를 했고, 둘째 날에는 예배와 명랑운동회, 바비큐 파티 및 복음 팔찌로 복음을 전하고, 수영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아웃리치에서 노방전도 팀장을 맡은 신랑을 따라 아웃리치 시작 3주 전에 노방전도 답사를 위해 양주 네팔 이주민교회를 방문했다. 목사님과 상의해서 함께 노방전도를 계획했다. 양주 네팔 이주민교회 목사님께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네팔 청년들이 토요일에도 보통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6시쯤부터 장을 보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교사님은 매주 토요일 오후 6-8시까지 마트 앞과 거리, 놀이터와 농구코트 등에서 전도한다고 하셨다. 선교사님과 함께 전도지를 들고 한 마트 앞으로 갔다. 그곳에서 네팔에서 온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와 삼삼오오 모여 있는 네팔 청년들 곁으로 다가가 대화를 시작했다. 네팔 청년들이 마음을 열어줘서 감사했다. 약 3주 뒤에 있을 운동회와 바비큐파티에 조



남양주 A공동체 네팔 이주민교회 아웃리치팀이 네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대하는 초대장과 전도지를 나눠줬다. 약 2시간가량 이어진 노방전도에서 20여 명의 청년들을 만났다. 네팔 청년들과의 대화는 보통 10분 이상으로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헤어질 때 허리 숙여 인사해서 우리 부부를 놀라게 했다. 노방전도에서 만난 네팔 청년들은 예의 바르고 순수한 미소와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었다.

어느덧 3주가 흘러 아웃리치 당일이었다. 양주에 도착했다. 이른 저녁을 챙겨 먹고 기도와

담대함으로 각자 전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전도하는 중간 중간 팀원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녔다. 서 계신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다. 전도의 땀을 흘리는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다.

한 바퀴 돌아 다시 마트 앞으로 갔다. 3주 전 만났던 네팔 청년이 서 있었다. 반가워서 다가가 인사했다. 3주 전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여

주며 “저 기억해요?”라고 물었다. 그 청년 역시 그날과 우리를 기억한다며 반가워했다. 정말 기쁘고 감사했다. 우리는 그 청년과 또 반갑게 대화를 나눴다. 그 청년은 출근 때문에 주일날 있을 운동회에 못 가는 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장을 보러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또 다른 청년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사이다 하나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사이다 내일 못 온다고 했던 청년이 마시라고 사주고 갔어!”

사이다를 받으면서 말문이 막혔다. 그 청년의 따뜻한 마음과 집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이 아웃리치 기간 내내 감동이었다. 간증을 쓰는 이 순간에도 그 기억 덕분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엄청 시원하고 달콤했던 사이다를 마시며 기도했다.

“하나님! 저 청년이 하나님을 꼭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어마어마한 폭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비 오듯 땀을 쏟으셨던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조아라 성도
(남양주 A공동체)

남양주 B공동체
봉화 서벽교회

남양주온누리교회 B공동체 다산다락방이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서벽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한 달 전 사전모임과 메신저로 매일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팀원 중에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으로 아웃리치 참여가 어려운 지체도 있었다. 하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여 서벽교회의 낙심하는 이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위해 일상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출발했다. 특히 서벽교회에 위중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낙심한 이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다.

동네 이장님이 방송으로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셨다. 마을 어귀에 ‘남양주온누리교회 미용봉사’라는 현수막도 걸어주셨다.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드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어르신들을 찾아가 사역을 시작했다. 의료팀은 아프신 주민들을 방문했다. 그중에는 말기 암으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도 계셨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 것 같다는 의료팀 집사님의 나눔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미용팀은 어르신들에게 염색과 컷트를 해드리며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했다. 나는 미용팀에서 어르신들의 염색을 해드렸는데 색이 정말 마음에 드



남양주 B공동체 봉화 서벽교회 아웃리치팀이 어르신들을 찾아가 미용 봉사를 했다.

신다며 흡족해하시는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에 덩달아 행복해졌다. 그분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우리가 전한 사랑의 온기가 남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기도했다. 전도팀은 무척 더운 날이었지만 집집마다 방문해서 부채, 음료수, 수건을 선물하며 복음을 전했다. 주방팀은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잔치 음식을 준비했다. 음식 만드느라 주방에만 있어야 하기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음식을 통해 전달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섬

겼다. 허리와 어깨가 아픈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섬기는 모습이 감동이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을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사역인 마을 잔치에 오실 어르신들을 기다렸다. 교회에 낙심해서 나오지 않던 분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가셔서 감사했다. 어르신들이 끝까지 신앙을 이어가시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울렸다. ‘은혜’라는 찬양으로 특송을 했을 때 맨 앞에서 목사님이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목이 뻐다. 서벽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왔다.

어려운 농어촌교회들을 찾고,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었던 서벽교회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무모하고 힘들다고 느껴져 낙심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섬기는 분들의 마음을 바꿔서 다시 상황이 열리게 하셨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다. 예비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격려하셨다.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 은혜로 큰 회복과 기쁨을 경험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사는 아파트 정원에 잡초들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아웃리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아파트 입구에 뽑힌 잡초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아웃리치를 통해 그동안 내 마음에 자라난 무질서한 잡초들이 뽑힌 것처럼 느껴졌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내 마음속 무질서한 잡초가 깨끗하게 정돈되어서 마음까지 시원해졌다.



음수진 성도
(남양주 B공동체)

내 마음의 잡초들이 뽑힌 것처럼...

인천온누리교회
미안마

보내는 선교사는 의무!

나의 첫 해외 아웃리치를 미안마로 가게 됐다. 미안마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미안마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했던 기도부터가 무척이나 설레고 감격적이었다.

미안마 양곤에 도착했다. 김문수 선교사님과 현지인 청년 2명이 우리 아웃리치팀을 장미꽃으로 맞이해주었다. 미안마 양곤 호텔에서 다음 날 방문하기로 한 객현섭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했다.

우리팀은 객현섭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산주마찌섬(낭썬)에 있는 MOT(디베라의아침)까지 먼 거리를 이동했다. 그곳에 도착해서 만난 객현섭 선교사님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성인에게는 재봉 일과 컴퓨터, 미용을 가르치고 계셨다. 또한 학생 150명을 위해 방과후 학교도 운영하셨다.

이 마을에는 15개 이상의 초대형 절이 있다. 하나님이 왜 <이사야> 60장 말씀을 이곳에서 선포하도록 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곳에서 객현섭 선교사님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MOT 학생들과 함께 에코백에 색칠하고, 그림 그리는 수업을 했다. 다행히 영어



인천온누리교회 미안마 아웃리치팀이 미안마 현지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로 의사소통이 되어서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날은 작은 배를 타고 인레호수 MOI 수상마을로 이동했다. 수상마을은 하나님이 방금 수채화를 그려 놓은 듯 정말 아름다웠다.

그곳에서 우리는 2인 1조로 가정 방문을 했다. 집으로 들어가 봤더니 부엌에는 밥을 해 먹은 흔적이 없고, 가구도 없었다. 엄마와 아이들이 힘들게 담배 천 개를 만들어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마저

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먹을 것도 없는 집에 불상이 있고, 불상 앞에는 예쁜 생화가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좁은 집이었지만 우리가 춤을 추며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찬양을 부르자 그들도 박수를 치며 따라서 찬양했다. 그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선포가 저절로 나왔다.

선교사님이 MOI 인레호수에서 병원선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계

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어 안심했다. 아웅반 개척교회의 공사현장을 보고, 방과 후 학습관에서 기도했다. 따웅지 청년선교센터 'J21'으로 돌아와 청년들과 함께 주일 예배도 드렸다. 청년들이 찬양도, SUM도 잘하고, 말씀도 줄줄 외웠다. 그 청년들의 마음이 나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리고 피난민 가정 방문을 했는데 약 3평 정도 되는 집에 45명이 들어가 앉았다. 많은 인원으로 인해 무너질까 불안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눈빛으로 간절히 찬양했다.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다.

객현섭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피난민이 되어 집을 빼앗기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떠돌이가 된 사람들을 위해 '예수마을'을 계획하고 계셨다. 객현섭 선교사님의 계획대로 그 땅을 구매할 수 있도록 땅 밟기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미안마에서 온누리교회 Acts29

비전의 참 뜻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번 미안마 여름 아웃리치를 통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애란 성도
(인천온누리교회)

일산파주공동체
세네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실장님도 예수쟁이었어? 하여간 예수쟁이들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을 많이 한다니깐. 아프리카에 간다고? 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가. 돈 들고, 시간 들이면서 거길 대체 왜가? 어려운 사람 앞에 있는 거 안 보여?”

거래처 사장에게 이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내가 이 질문 앞에서 명확한 대답을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왜 아웃리치를 신청했는가?', '그곳에 가서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의 만류를 무시하고 아웃리치에 꼭 참여해야 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아프리카 세네갈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그곳에 계시는 이재일, 조순희 선교사님 부부와 홍석문, 김미현 선교사님 부부를 도와 의료사역을 하는 일산파주공동체의 해외 아웃리치였다. 의사인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사이에 끼어서 공동체 막내로 참가했다. 출발 전에는 아웃리치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켜 보면 더 있을 체력이 안 됐을 것 같다.

7월 30일(주일) 리차드톨의 RT센터에서 의료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식을 했다. 아무래도 선교사님께서 우리 일정에 맞춰 세례식을 준비하신 듯했다. 생각지도 못한 세례식이 정말 큰 감동이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세례식을 보면서 이슬람이 퍼져있는 그 땅에



일산파주공동체 세네갈 아웃리치 중에 진행된 세례식.

서 선교사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 보호해달라고, 더욱 사랑해달라고, 내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지구 반대편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듯했다. 단상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 이들이 우리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하는 RT센터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눈물을 펄펄 흘렸다. 나에게 이토록 뜨겁고 감동적인 예배가 근래에 있었던가? 세례식이 끝날 즈음 훌쩍대고 있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안기는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나이가 한참 많은 아저씨가 그러고 있으니 말이다. 내 마음과 기도가 그들에게 닿기를 바라며 꼭 끌어안았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

겠느냐?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16).

이번 아웃리치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또 사막 한 가운데 있는 마을에 가서 주사치료에 아파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피를 알콜솜으로 닦아주고, 진료가 끝난 뒤에는 약국으로 환자를 안내하는 일을 했다. 누가 보면 허드렛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에 전념했다. 남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을 신경 쓰지 않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했다. 그들이 훗날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었다는 것을 느끼기를 기도한다.



김기훈 순장
(일산파주공동체)

동작공동체
진도

동작공동체는 지난해 아주 특별한 아웃리치를 했었다. 공동체 전체가 한 곳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락방별로 같은 지역의 각기 다른 3개 교회를 섬긴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없었기에 고민하며 준비한 사역이었다. 다락방별로 인원 20여 명을 꾸려 1박2일 아웃리치를 했었다. 짧은 기간과 적은 인원이라 걱정했는데, 아웃리치에 참가한 공동체 식구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방법이라 미흡한 점도 많았다. 숙식 문제, 일정 관리, 교통편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적은 인원이 사역하면서 한 사람이 여러 일을 감당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꼼꼼하게 아웃리치를 기획하고 준비했다.

동작공동체 2023 여름 아웃리치 장소가 진도로 정해졌다. 진도군에 있는 3개 교회를 다락방별로 맡아 섬기기로 했다. 아웃리치 본부팀을 만들어서 전체 일정과 내용, 필요 사항들을 준비하고 관리했다. 각 다락방에서는 온전히 사역을 준비하고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본부팀에서 공동체 전체의 숙식과 교통편, 필요 물품, 현장 지원 등을 담당했다. 3개 다락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인원 이동, 필요 물품 구입, 예배 준비 등 결정이 필요한 순간마다 지체 없이 의견을 조율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본부팀에서 같이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다.



동작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진도군 교회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아웃리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냈다. 공동체 전체 중보기도, 다락방별 중보기도로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서울에서 진도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각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2박3일 일정이었다. 지난해보다 하루 길었지만, 많은 사역을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계획대로 이끌어가셨다. 2개 교회의 외벽 페인트 작업을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녁 식사를 섬기게 하셨다. 또 3일 동안 초등부 학생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 외에도 의료 봉사과 이미용 봉사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셨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지만,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 빼놓지 않았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일가족 3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하고 예배드리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을 수 있었다.

아웃리치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다. 이번 아웃리치는 지난해 아웃리치가 끝난 순간부터 준비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아웃리치가 끝나자마자 올해 아웃리치 이미용 봉사를 위해 수업을 시작한 분들이 계신다. 다른 공동체로 이사하면서도 올해 동작공동체 아웃리치에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들도 있었다. 그 약속대로 이사한 공동체의 8일 동안 해외 아웃리치를 마치고 곧장 동작공동체 아웃리치에 참가하셨다. 하나님이 그 귀한 마음들을 모아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웃리치였다.

아웃리치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16절이었다. 올해 아웃리치는 끝났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동작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다시 기도로 내년 아웃리치를 준비하려고 한다.



김재우 순장
(동작공동체)

강남D공동체
은혜교회

강남D공동체는 30~40대 위주로 구성된 젊은 공동체다. 젊은 성도들의 순 정작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공동체 사역이 위축되어 있었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올해 여름에는 군부대 교회 아웃리치를 계획했고, 연천에 있는 대대급 군부대 교회인 ‘은혜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은혜교회를 섬기는 김성권 목사님은 군 장교 출신이다. 초급 장교 시절부터 전도에 힘써오셨다. 전역하고 나서는 목회자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다. 사모님인 문영은 목사님도 다른 군부대 교회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다. 군선교에 헌신하고 계신 부부를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이 있었다. 김성권, 문영은 목사님 부부의 더 자세한 이야기는 CGN에서 방영하는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에서 시청할 수 있다. 감동과 도전, 은혜가 있으니 꼭 시청하기를 추천한다.

원래 강남D공동체 아웃리치는 8월 하순으로 계획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한 달 앞당겨 7월 23일 진행했다. 급박한 준비 일정으로 걱정이 있었지만, 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다. 아웃리치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아웃리치 주제를 ‘장병들에게 말씀과 기도를!’로 정했다. 날마다 중보기도하며



강남D공동체 아웃리치팀이 군부대 교회 ‘은혜교회’에서 군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아웃리치 당일에는 은혜교회에서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고, 휴전선 앞 전방대에서 북녘땅과 장병들을 위한 기도회를 계획했다. 은혜교회에 출석하는 장병들과 전도하고자 하는 장병들의 명단을 받아서 강남D공동체 세 가정당 한 장병을 연결해서 ‘삼겹살 기도’를 했다. 매일 모든 장병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아웃리치 2주 전부터는 온라인(Zoom)으로 아웃리치 기도회를 열었다.

더운 날씨와 급박한 일정 때문에 너무 적은 인원이 참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은혜교회 아웃리치에 총 115명(성인 93명, 자녀 22명)이 함께했다. 부대에서도 대대장 이하 장병 55명이 함께했다. 은혜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군 장병들에게 성경책 70과 개인별 선물을 전달했다. 공동체 찬양팀과 군종병들이 함께 팀을 만들어 찬양을 인도했다. 예배에서는 김창호 목사님께서 ‘인생의 의미를 따라 사십시오’(요 21:3-6)를 제목으로

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우리는 참석한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했다.

예배를 마치고 휴전선 남방한계선 바로 앞에 있는 열쇠전망대로 이동해서 브리핑을 들었다. 원산부흥운동과 평양대부흥운동 등으로 이 땅의 영적 각성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압제에 신음하고 있는 북녘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영육간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우리의 기도보다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준비하는 시간이 짧다고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준비 시간을 허락하셨다. 공동체 아웃리치에 너무 적은 인원이 참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00명 넘는 참석자를 허락하셨다. 부대에서 너무 적은 인원이 예배에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대대장 이하 50명이 넘는 장병들이 함께 하게 하셨다. 날씨가 나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윤원재 집사
(강남D공동체)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포공동체
중앙아시아 A국

마포공동체가 지난달 21~27일 중앙아시아 A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현지 사정상 열두 명의 소수 인원만 참여했다. 하지만 공동체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고 후원했다. 이번 해외 아웃리치에서 받은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현지 영혼들을 어미의 심정으로 돌보는 선교사님의 눈물과 사랑을 봤다. 중앙아시아 A국은 열악한 경제 상황, 낮은 문화, 기후 등의 힘든 외적 환경과 더불어 인구 70%가 무슬림으로 복음 전파하는 데 제약이 많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을 저버리기 일쑤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은 자식을 돌보는 어미의 심정으로 묵묵히 현지 영혼들을 섬기고 계셨다. 한 선교사님은 위구르 종족 선교의 소명을 받고 중국에서 10년 넘게 사역하다가 추방당한 이후 중앙아시아 A국으로 옮겨와 위구르 종족 사역을 하고 계신다. 자신의 안위는 상관하지 않고,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가득한 모습에서 참 목자의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 선교사님들의 삶이 나오는 무관하거나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제 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둘째,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계셨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마포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중앙아시아 A국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믿는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거는 것과 같다. 공동체에서 관계가 단절되고, 불이익과 핍박을 감수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A국 C지역에 사는 한 부부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든든한 영적 리더로 세워지고 있다. 어느 날 무슬림 지도자가 찾아와 믿음을 버리도록 회유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다며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했다고 한다.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그들의 표정에 빼앗을 수 없는 평

강과 기쁨이 넘쳐났다. 남편은 내년에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단했다고 한다.

Z지역 한 성도는 무슬림 성직자의 딸인데 남편의 폭력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선교사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움을 치유 받고,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고 있다. 선교사님은 Z지역 영혼들을 위해 매주 주일 잡고 힘든 비포장도로를 3~4시간 운전해서 방문한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밤늦게 돌아오는 수고를 감내하신다. 수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포기하

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열매가 맺히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다.

마포공동체 아웃리치팀은 이틀 동안 어린이 25명과 영어 프로그램을 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영어로 복음을 설명했다. 영어로 말씀을 암송하게 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몇몇 아이들이 자신이 들은 복음을 아버지와 친구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엄마들도 자녀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따돌림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마포공동체 아웃리치가 선교사님들께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 해외 선교 현장을 귀로 듣는 것과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었다. 전에는 해외 선교가 절실하게 와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좁은 마음을 찢어 넓히시려고 이번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생각한다. 일주일 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내 영혼은 천국의 기쁨을 누렸다. 중앙아시아 A국 선교사님들과 영혼들을 위한 기도에 부담감이 생겼다.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함께 땀 흘린 아웃리치 팀원들에게도 감사하다.



남주현 집사
(마포공동체)

일본어예배
일본 야마가타

지난 8월 3일부터 8일까지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일본 야마가타현 사카타시에 있는 사카타 그리스도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야마가타현은 한국에서 가는 직항편이 없어서 하네다공항에서 7시간을 대기한 다음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가야 했다. 이동하는데만 꼬박 하루가 걸려 저녁 10시 반이 되어서야 사카타 그리스도교회 숙소로 도착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튿날 새벽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그날 하나님이 QT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행 18:10)고 말씀하셨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안전하게 지켜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사카타 그리스도교회는 성도가 120명 정도 된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다. 타카하시 담임목사님은 야마가타 러브소나타 위원장을 역임하셨다. 온누리교회의 사역 철학에 크게 공감하셨고,故 하용조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성도라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는 목회 철학을 따라 사역하고 계셨다.

올해 2월부터 스무 명이 참여한 일대일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에 직접 참여하시기도 했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에 타카하시 목사님께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반 수료자 20명 중에



일본어예배 아웃리치팀이 일본 야마가타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서 16명이 양육자 과정에 다시 헌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할렐루야!”를 외치셨다. 또 우리 아웃리치팀의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마음에 갈등이 있던 나머지 세 명의 동반자가 양육자반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타카하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크게 기뻐하셨다.

코리안데이에는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과 미국에서 합류한 소프라노 심난영 자매의 솔로, 안인숙 집사의 한국전통 무용, 최은성 군의 태

권도 격파 시범 등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소개했다. 또 무언극을 통해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몸으로 표현하며 복음을 전했다. 뒤이어 한종희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셨고, 네 명의 새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2부 행사에서는 100인분의 한국전통 음식을 준비해서 참석한 사람들과 나누며 교제했다. 나눔의 축복과 기쁨이 가득한 그곳에서 천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요양시설 방문은 성가대를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3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다. 또 어르신들과 요양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찬양했다. 간단한 선물을 나누면서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고 복음도 전했다.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의 배움 과정을 격려하고, 조그마한 화환을 씌워 주려고 퇴근 이후 곧장 야마가타까지 날아와 수료식에 참석하고, 다시 월요일 출근을 위해 야간버스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 한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2천 년 전 사도 바울의 열정과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다. 참 귀하고도 귀한 헌신들이 모여 만들어진 아웃리치였다. 꿈만 같았던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아웃리치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했다. 한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의 헌신과 눈물, 기도가 필요한지, 나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는지를 돌아봤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 달릴 것이다.



김상호 집사
(일본어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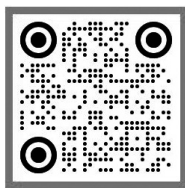
〈생명의 삶〉 표지 사진 공모전 당선작 발표

2천 점 출품,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등 24점 당선

두란노서원이 '오늘, 예수 안에 살다'를 주제로 실시한 〈생명의 삶〉 표지 사진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다.

〈생명의 삶〉 표지 사진 공모전에는 2천여 점이 출품됐다.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佳作 5점, 입선 15점 등 총 24점이 당선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두플러스 스마트 플랜 1년 이용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당선작은 〈생명의 삶〉 캠페인 페이지(www.durannoqt.com)에 한 달 동안 게시하고, 2024년과 2025년 〈생명의 삶〉 표지로 활용된다.

박찬근 형제(수원중앙침례교회, 최우수상)는 “어두운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은하수와 함께 한 줄기 빛을 내는 교회를 보면서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는 크리스천의 삶을 묵상했다”면서 “다른 성도들도 이 사진을 보면서 빛으로 찾아와주신 예수님과 세상의 빛이 되는 크리스천의 삶을 묵상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당선작 확인 QR코드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의 삶〉 표지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작품.

2024년 상반기 결혼예배 예약

9월 19일 화 오후 7시 양재 드림홀

2024년 상반기(1~6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을 받는다. 9월 19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지하 2층)에서 추천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은 예비신랑, 신부 또는 양가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어야 할 수 있다. 예비신랑과 신부는 등록 교인이어야 한다(타 교회 포함).

결혼예배 예약을 하려면 예약금 1

백만 원(당일 이체 불가, 현금으로 준비)과 등록교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예비신랑, 신부가 타 교회 성도일 경우에는 소속 교회의 '등록교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결혼예배 날짜를 미리 2~3개 선정해서 오는 게 좋다. 결혼예배 추천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주례는 온누리교회 목사만 가능하고, 양재온누리교회에 서만 드린다. 문의: 02-570-7505

한국어선교학교 수강생 모집

9월 2일부터 10주 동안 온라인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한국어 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세례 교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타 교회 성도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70명이다.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9월 8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

면 된다. 강의는 9월 2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한다. 1주와 10주 과정은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오프라인으로 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10-6652-3596

“성경이 보인다! 성경이 재밌다!”

역사드라마로 읽는 성경,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역사드라마로 읽는 성경’은 흥미진진한 역사, 지리 이야기로 성경을 공부한다. 9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류모세 목사(열린다성경아카데미 대표)가 강의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는 아침마다 한 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이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예게해 크루즈편’은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게해에서 진행된다.

문의: 010-2814-0254

(역사드라마로 읽는 성경)

010-4902-1022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Why Mission?’ 참가자 모집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 참가자를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서빙고 9월 23일, 양재 9월 9일, 서산 10월 8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서빙고 9월 16일부터, 양재 9월 9일부터, 서산 10월 8일부터 시작한다.

문의: 서빙고 (010-6247-3504)
양재 (010-3652-5896)
서산 (010-5383-1104)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 모집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 24가정을 선착순 모집한다.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회비는 가정당 35만 원이다. 동반 자녀는 1인당 5만 원이다.

수강신청은 9월 3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10-4427-5025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9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9월 5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182-9114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4주년

8월 23일 기념식, 임직원 350여 명 참석

온누리복지재단이 창립 24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기념식이 지난 8월 23일(수)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온누리복지재단 임직원 350여 명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온누리복지재단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장기근속자를 표창했다. ‘온소미장학사업’ 후원자 김정완 권사에게 감사패도 전달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축하 영상에서 “온누리복지재단이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송영범 대표이사사는 “온누리복지재단 모든 임직원이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과 정직, 섬김과 전문성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개강

9월 13일부터 매주 수 오전 10시 50분

양재 시니어아카데미가 9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 드림홀에서 열린다. ‘성시화 탐구’, ‘창조론’, ‘원만한 가족 관계’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9월 13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시니어아카데미는 시니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노후를 보

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배운다. 정청 권사는 “시니어아카데미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자존감을 회복했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기대한다”고 고백했다.

문의: 010-9180-0692

02-570-7522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 8월까지 후원금 모집

NGO 더멋진세상이 우간다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을 8월까지 실시한다. 남수단 난민정착촌에 모기장을 보내고 싶은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계좌(하나은행 573-910009-09905)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후원금은 팔로리나 남수단 난민촌에 모기장 배포와 보건 및 위생 환경 개선에 사용한다.

팔로리나 남수단 난민촌에는 약 24만 명이 사용할 모기장 3천장이 필요하다(가구당 2~3장). 모기장 판매가격은 7천 원 정도다. 말라리아 치료제도 필요하다. 일반약 어른 2천 원, 아동 1천 원, 신약 어른 6천 원, 아동 3천 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betterworl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271-2248

미야기 기 · 도 · 제 · 목

- 8월 27일(주일) 러브소나타 ‘미야기’에 하나님이 주신 되심이 선포되기를
- 8월 28일(월) 미야기(센다이) 지역의 교회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기를
- 8월 29일(화) 이재훈 담임목사님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 8월 30일(수) 프로그램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 8월 31일(목) 미야기일본인의 마음에 러브소나타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 9월 1일(금) 러브소나타에 참가하는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기를
- 9월 2일(토) 하나님 사모하는 일본의 차세대 크리스천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아름다운 동행_커플링’ 참가자 모집

9월 2일~10월 28일 매주 토 장소

부부 코칭 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_커플링’이 개강한다. 9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아름다운 동행_커플링’은 부부 코치 훈련을 받은 한 가정이 다른 세 가정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

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도록 돕는 나눔과 적용 중심의 부부 코칭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과 카카오톡채널 ‘온누리아름다운동행’ 검색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10-4215-5837, 010-2633-4808

H2K(Home To Kingdom) 수료 간증



/ 최신옥 선교사(양지온누리교회)

H2K(Home To Kingdom)훈련 코칭 강의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셨다. 또 선교사로 헌신한 16년 동안 삶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한 채 열심히 살던 나를 돌아보게 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선교와 관련된 일이 나와 남편을 바쁜 일상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H2K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안식의 참된 의미를 재확인한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참된 안식이고,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나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프레임이 아니라 옛 자아의 관념과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 육신을 따라 살았음을 보게 됐다. 하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다시 한번 안식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생명을 재창조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기에 그 많은 일을 하나님 뜻을 따라 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안식과 팀빌딩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하셨다. 안식을 지키는 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리더십임을 재확인

전도콜센터 전도 대원 간증



/ 임선아 선교사(TIM, 한국로잔위원회)

지난해 가을학기에 온누리전도학교를 수료하고, 전도콜센터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전도콜센터에서는 온누리전도학교에서 훈련받은 지체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전도대상자와 전도 훈련이 필요한 곳을 섬기고 있다. 지난 7월 초, 온누리전도학교 전도 대원들이 군부대 교회를 찾았다. 장마철이라 비가 오다 말다 하는 곳은 날씨였지만, 장병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생각에 설렘했다. 시간을 낼 수 있는 전도 대원 열두 명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차로 40분가량 달려 부대에 도착했다. 지난 2월 방문 때보다 훨씬 많은 30명 정도의 장병들이 예배에 출석했다. 군부대 특성상 장병들의 제대와 입대가 반복돼 지난번 만났던 얼굴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문득문득 익숙한 얼굴들이 보여 정말 반가웠다. 이번에는 키보드와 바이올린 연주자가 부대 찬양팀과 연합해서 찬양을 인도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 큰 은혜가 되었다. 군부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내외분의 헌신이 정말 귀했다. 장병들이 땀 흘리는 훈련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주일에 하나님께 예

안식으로의 초대

할 수 있었다. 말씀에 비취 본질이 아닌 것을 구분해 내는 작업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정체성과 선교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쉽기 않으면 결국 번아웃(소진)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은 변아웃 된 나에게 <마태복음> 11장 28~30절 말씀을 주셨다. 나를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예수님께 와서 쉬도록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쉬어야 하는 자에게 다시 멎음을 메라하신다. 왜 쉬는 사람에게 멎음을 메라고 하십니까? 그 멎음은 둘이 진다. 한쪽은 예수님이, 또 다른 한쪽은 내가 멎는다. 예수님이 멎음을 메시고 앞으로 걸어가시면 나도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이 잠시 쉬시면 나도 함께 쉰다. 예수님께 쉬를 배울 때 나의 마음도 쉬를 얻는다. 예수님의 멎음은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멎음의 모든 무게를 담당하시기에 나는 멎음을 메었지만 쉽고, 그 짐도 가볍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참된 안식 속에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완주할 수 있다. H2K훈련을 통해서 안식으로 나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군부대 교회는 전도의 황금어장!

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 것도 감사했다. 예배 후 조를 짜서 전도 대원 한 명당 장병 2~3명이 마주 앉았다. 주어진 20분 동안 장병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전도지 <최고의 행복>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거나 군복무를 하면서 처음 교회를 다니는 등 신앙의 배경이 다양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복음을 제시했다.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전도대상자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내가 만난 장병 4명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했다. 할렐루야! 군 복무 중에 복음을 듣는 것은 어쩌면 청년의 때에 마지막으로 회심할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군부대 교회는 전도의 황금어장이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의 준비된 다양한 연령층의 전도 대원들이 군부대 교회에 출석하는 장병들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그들의 삶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하기를 기도한다. 문의: 02-3215-3377(전도콜센터)

NLS 시리아 난민교회 전도집회 간증



/ 권기현 총무(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

지난달 온누리교회 협력교회인 이스탄불 NLS 시리아 난민교회(이하 NLS교회)에서 맞춤전도집회가 열렸다. 이날 전도집회에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난민 95명과 NLS교회 스테프 37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도집회는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가 아이디어를 냈다. 전도사역본부가 몇 달 동안 SWIM(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과 동역해서 전도집회 진행 교육, 관련 영상 지원, 금식기도 등으로 전도집회를 도왔다. 드디어 집회 당일이 됐다. 사회자 A형제가 능숙한 말솜씨로 참석자들의 긴장을 풀었고, 그의 부인 L자매는 어떻게 목숨 걸고 시리아에서 탈출했는지를 간증하면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샌드애니메이션 영상에서는 난민들의 전쟁 피해와 2차 지진 피해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이용만 장로의 간증 영상에는 한국 전쟁 중에 맞은 총알이 몸에 박힌 채 고생하며 살아온 이야기, 장관직에 올랐던 이야기 등이 담겨 있었다. 이용만 장로의 간증을 보면서 참석자들이 자신들도 전쟁의 상처를 딛고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다음에는 A목사가 샌드애니메이션 스토리를 이어받아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

그 네 가지 의미

일한 선택임을 알렸다. 전도집회 참석자 모두가 꼭 다시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가정은 성경책을 달라고 했고, 한 여인은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믿겠다고 고백했다. 네 가정은 치유와 문제해결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NLS교회 난민 전도집회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지진구호는 구호품 전달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NLS교회는 지진구호와 전도를 연결했다. 기독교의 구호사역이 전도까지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줬다. 둘째,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난민 전도를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셋째, 온누리교회 맞춤 전도를 난민들에게 원격으로 지원하고, 그들 스스로 시행하는 모델을 세워 새로운 맞춤 전도의 장을 열었다. 넷째, 2000선교본부와 SWIM의 융합선교가 전도사역본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 범위가 넓어졌다. NLS교회 난민 전도집회를 위해서 몇 달 동안 애쓰고 지원해 주신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에 깊이 감사하다. 집회를 은혜롭게 이끄시고, 난민들에게 믿음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스태프 간증



/ 이은주 성도(안산동산교회)

은혜 나누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어느날 진주는 팀장님이 두란노어머니학교 안산 34기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셨다. 고민하다가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두란노어머니학교 개강 일주일을 앞두고 신청했다. 셋째 아이가 생후 9개월에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재활 치료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족의 삶이 철저히 셋째 아이 중심으로 움직여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갔다. 나는 4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았다. 나아질 기미가 없는 내 상태를 답답해하던 중에 ‘결국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시기가 두란노어머니학교를 만난 때였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나를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 무력감을 조금씩 회복했다. 안산 34기 두란노어머니학교를 마쳤는데 진주는 팀장님께서 이번에는 “35기 스테프로 함께 하자”고 권유하셨다. 한 발 뻗 생각으로 팀장님께 “스테프가 정말 부족하면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그런데 편지사역팀의 스테프가 부족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 우리 가족과 선생님들의 협조를 받게 하셨다. 그렇게 나는 35기 편지사역팀 스테프가 되었다. 스테프로 섬기면서 정말 많은 사람의 기도와 헌신, 수고로 두란노어머니학교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원자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있는지를 봤다. 그 기도가 쌓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정마다 서서히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 가정에도 회복이 있었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 참가하며 정서적 이혼상태인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간구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얼마 전 남편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건넸다. 남편도 같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가족이 아주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더디더라도 하늘 저 끝에 먹구름 한 조각이 비치므로 가물어 썩썩 갈라졌던 땅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성령의 단비로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는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함께 은혜 나누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스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형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분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요일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1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체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고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재정팀(서빙고)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 근무)
자격: 2년제 이상, 기업회계 경력 5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 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호스피스 전문봉사교육
일시: 9월 7일~11월 30일 매주 목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
접수: 아이스쿨
문의: 강경옥 팀장(010-3412-7966)

시니어 아카데미 모집
기간: 9월 13~11월 11일 매주 수 오전 11시~오후 1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접수: 아이스쿨
문의: 02-3215-3266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영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임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NGO더멋진세상 채용 공고
홍보 담당자 1명(신입/경력)
업무: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 및 운영
문의: 문주영(070-4402-3023)
*자세한 사항은 더멋진세상 홈페이지(betterworld.or.kr) 공지사항 참고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부 9:00, 유치부 11:30 / 유년부 9:00, 유년부 11:30 / 초등부 9:00 / 초등부 11:30 / 소년부 9:00 / 소년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 J대 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텐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준비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아부, 유치부) 11:30 아텐젤러홀(2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0: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결혼

9월 2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이상석, 박미숙(이룸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이원형(온누리교회)
 송해성, 이현주(온누리교회)의 딸
 송신혜(온누리교회)

9월 2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김영배, 최송자(광명순복음교회 안수집사, 권사) 아들
 김성은(온누리교회)
 김동석, 황선숙(수지목양교회 권사, 권사)의 딸
 김소영(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재정

**모바일현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현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현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습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세례

■ 소천
 8/19(토) 이영민 성도 시무상 고 김귀선 님
 8/19(토) 강서 박범식 집사 모친상, 김경희 집사 시모상
 고 이삼례
 8/21(월) 양천 이계상 집사 모친상, 김효순 권사 시모상
 고 김정화
 8/22(화) 이춘 황진기 성도 부친상 고 황정무
 8/23(수) 푸른누리 안재환 성도 부친상 고 안영호 님
 8/23(수) 서초A 김재묵 집사 모친상 고 김석임 권사
 8/24(목) 예수사랑부 김주희 성도 남편상 고 이승국
 8/24(목) 강서 박희란 권사 시모상 고 권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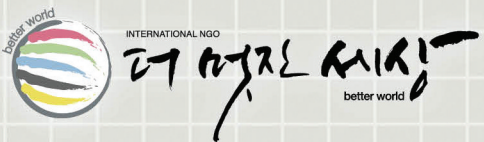
■ 세례

하늘
 김민서 031027
 신영은 970520

허브
 김미송 000401
 김하진 021224
 나한나 000703

-입교
 강다은 010130
 김다연 980304
 현예담 000411

-입교
 전주리 040307



NGO 더멋진세상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

생명을 지키는 모기장으로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계3대 감염질환 말라리아, 감염자의 95%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합니다.
우간다의 남수단 난민정착촌은 나일강 습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모기서식지가 많아 말라리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모기장 하나만으로도 말라리아 감염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간다 난민정착촌의 난민 가족



모기장 후원으로 남수단 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지원 대상 우간다 팔로리냐 정착촌에 거주하는 남수단 난민

지원 내용 모기장 3,000장(가구당 2~3장 배포/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모기장 배포와 보건 및 위생환경 개선에 쓰여집니다.



홈페이지 betterworld.or.kr
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9905
(사)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6 (내선 0번)

더멋진세상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국제개발 NGO입니다.